

경제

‘삼겹살=갯잎값’ 뿔로 싸먹지?

한파에 송년회 겹쳐 상추·갯잎 ‘금값’ ... 한달새 2배까지 올라

닷새째 한파가 몰아치면서 제철 먹을거리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갯잎값이 어제 19일 1만8500원에서 2만7800원으로, 일주일새 9300원(50.2%) 급등한 데 이어 삼겹살의 가격도 1kg 가격이 1만2200원으로, 한 달 전 9900원보다 23.2% 뛰었다.

한창 출하되고 있는 미나리 가격도 오른세다. 한 달 전 1만400원에 거래되던 미나리(상품, 1kg)는 지난 23일 1만4900원까지 올랐다가 이날 1만1400원으로 다소 하락했다.

의 가격이 급등하자 음식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연말에 고깃값과 채소 가격 폭등이 겹쳐 있다”며 “그렇다고 음식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다”고 한숨 지었다.

겨울철 인가를 끄는 굴의 경우 상품 1kg 가격이 1만9860원으로, 일주일(1만6320원)만에 3540원(21.7%) 상승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연말 모인 등으로 고기와 채소 수요가 증가한 탓에 가격이 올랐다”며 “김장철이 늦어져 최근에 크게 오른 삼겹살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겹살과 삼 채소, 제철 먹을거리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세수 비교
여수세무서 5조5270억원 1위
해남세무서 39억원의 1417배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전남 세무서중에서 여수세무서가 징수액 5조5270억3200만원으로 '세수 1위'에 올랐고, 해남세무서가 39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서광주세무서 최고

영등포 12조3천억 전국 1위

국 107개 세무서 가운데 징수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 전국 세무서별 세수 순위는 영등포 세무서 1위, 서광주 세무서 2위, 해남 세무서 3위 순으로 나타났다.

세 환급으로 인해 2009년 166억 1800만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던 해남세무서는 전년도 3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줄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영등포세무서는 12조3402억원의 세수를 올려 전국 107개 세무서 가운데 징수실적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국세청 세수의 7.4%에 해당하며 2009년(8조6193억원)보다 무려 43.2%나 증가한 액수다.

정유·중공업 업종이 몰려있는 울산시의 세수는 기업 매출·개인소득의 증가 덕에 8조3000억원에 기록됐다. 2009년(6조5000억원)에 비해 27.7%나 늘어난 수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지분’ 팔아라”
특성화고 2만명 취업지원
중소기업청

채권단이 계열분리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에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석화의 계열분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갖고 있는 금호석화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이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내년 3월이나 돼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화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채권단이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특성화고와 산학협력률 통해 중소기업에 현장기술 인력 약 2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2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전국 특성화고 200곳에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해 인력을 양성하는 특화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업체 인증제도’를 신설, 업체당 4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좋은 업체 위주로 ‘취업하고 싶은 500대 중소기업’을 선정해 구직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지방청 디자인 설계센터를 통해 500여개 업체에 전문인력의 디자인을 공급할 예정이며 외국 고급 인력을 발굴해 중소기업 취업에 연계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연립뉴스



(주)쿠보텍은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에서 생산공장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쿠보텍’ 첨단산단에 공장 준공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본격 제품생산에 돌입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주)쿠보텍(대표이사 정철웅)이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쿠보텍은 지난 24일 광주 첨단산단에 70여억원을 투입해 1만5200㎡ 규모의 생산공장을 준공, 치과용 비귀금속 합금 및 지르코니아 세라믹 생체 재료를 생산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북 경산에서 광주로 이전한 쿠보텍은 광주테크노파크 타타라·특수합금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유해물질인 베릴륨을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주조성이 우수한

치과용 인체 친화형 합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베릴륨은 공기 중 분진 등과 접촉하면 만성 폐질환·급성 간질성 폐렴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센터는 베릴륨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의 치(불)지(불)지(불)는 없으면서도 강해야 하기 때문에 합금 주조성이 뛰어난 베릴륨이 첨가된 합금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쿠보텍이 개발한 합금은 주석과 니오브 등을 혼합해 주조 가공이 쉽다. 또 가공업체들이 소유한 제조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다. 치과용 합금은 금속의 치과보철물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로 국내시장 규모는 약 60억원이며, 세계시장 규모는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는 등 광주지역 치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철웅 대표는 “첨단공장 준공을 계기로 신성장동력산업인 3차원 및 광-의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며 “시장을 해외로 넓혀 세계 최고 광-치과)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 사업’의 유치를 위해 지역기업들이 치과산업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5·K7·스포티지R 등
‘설 귀향 시승단’ 모집
기아차, 200대 제공

기아자동차는 설 연휴 기간인 내달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K5하이브리드, K7, 스포티지R, 카니발R 등 시승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설 귀향 시승단’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1월9일까지 원하는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는 1월 13일 추첨을 통해 시승단을 선발, 홈페이지에 명단을 발표한다.

기아차가 이번에 제공할 설 귀향 시승차량은 K5하이브리드(80대), K7(20대), 스포티지R(50대) 등 총 200대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Index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856.70), 코스닥지수 (501.37), 금리 (3.38%), and 원·달러 환율 (1155.00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2012년도 제20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Includes details on application period, requirements, and contact information.

신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Includes benefits, installation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